
 <b>산업통상자원부</b> 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		<b>보 도 자 료</b>		 <b>보다나은 정부</b> 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	
<b>2019년 12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1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		
배포일시	2019. 12. 11.(수)		담당부서	전력산업과 / 에너지효율과	
담당과장	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 유성우 과장(044-203-5140)		담당자	권주현 사무관(044-203-5157) 박현호 사무관(044-203-5143)	

## 12월 첫 주, 전력수급 차질없이 석탄발전 감축 정상추진

- ▶ 12기 가동정지, 최대 45기(20~45기) 상한제약 시행
- ▶ 전년동기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187톤 저감(약 46% 감축)
- ▶ 적정 난방온도 점검,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등 수요관리 강화 시행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책\* 이행을 위해 **12월 1일 0시부터 석탄발전 감축을 차질없이 시행중**이라고 밝혔다.

\* 「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」(11.28,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

- 12월 첫째주 석탄발전 총 12기에 대한 가동정지\*와 함께 최대 45기의 상한제약(발전출력을 80%로 제한)을 시행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.

\* 가동정지: 노후석탄 정지 2, 예방정비 5, 추가정지 5

- 이를 통해, 전체적으로는 일별 석탄발전기 16~21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.

< 석탄발전 감축 규모 현황(기) >

구 분	12.1(일)	12.2(월)	12.3(화)	12.4(수)	12.5(목)	12.6(금)	12.7(토)
가동정지	12	12	12	12	12	12	12
상한제약	44	39	38	39	37	20	45
가동정지 효과	21	20	20	20	19	16	21

- 특히, 산업부는 12월 첫째 주 석탄발전 감축운동을 통해,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46% 감소한 약 187톤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.

< 12월 첫째주(월~일)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 >

구 분	'18.12월 첫째주	'19.12월 첫째주	저감량
미세먼지(PM2.5) 배출량(톤)	408	221	△187

-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“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, 남은 겨울철 기간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< 12월 첫째주 주중 전력수급 현황(만kW) >

구 분	12.2(월)	12.3(화)	12.4(수)	12.5(목)	12.6(금)
공급능력	8,969	8,865	8,824	9,075	9,293
전력수요	7,645	7,795	7,662	8,025	8,179
예 비 력	1,324	1,070	1,162	1,050	1,114
예 비 율	(17.3)	(13.7)	(15.2)	(13.1)	(13.6)

- 한편, 산업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0개 지역 대상으로 **절전 캠페인도 전개 중**이라고 밝혔다.

\* (단체) 새마을운동중앙회,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, 한국여성단체협의회,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, 에너지시민연대, (지역)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전주, 목포, 춘천, 세종 등

\*\* 적정 실내온도 유지시 건강관리에 장점 등의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 제작·업로드(1월) 등

- 특히,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과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적정 난방온도(민간 20℃, 공공 18℃ 이하) 준수 실태를 월 1회 2주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,

\* 공공기관 이행실태 1차 점검(12.9~12.20일), 2차('20.1월중), 3차('20.2월중)

- 전국 18개\* 주요상권 대상 「에너지절약 착한가게」 캠페인(12.6~2.29)과 함께 전력피크 예상기간('20.1월 4주)에는 '문 열고 난방영업'에 대한 단속(최대 300만원 과태료)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\* 서울(명동역, 강남역, 홍대), 부산(서면, 남포동), 울산 남구, 대구(중앙로역, 동성로), 인천 부평, 광주 금남로·충장로, 대전 둔산동, 경기 수원역, 경기 안양 범계역, 강원 춘천, 충북 청주 성안길, 전북 전주시청, 경남 창원 상남동, 제주 제주시청 인근